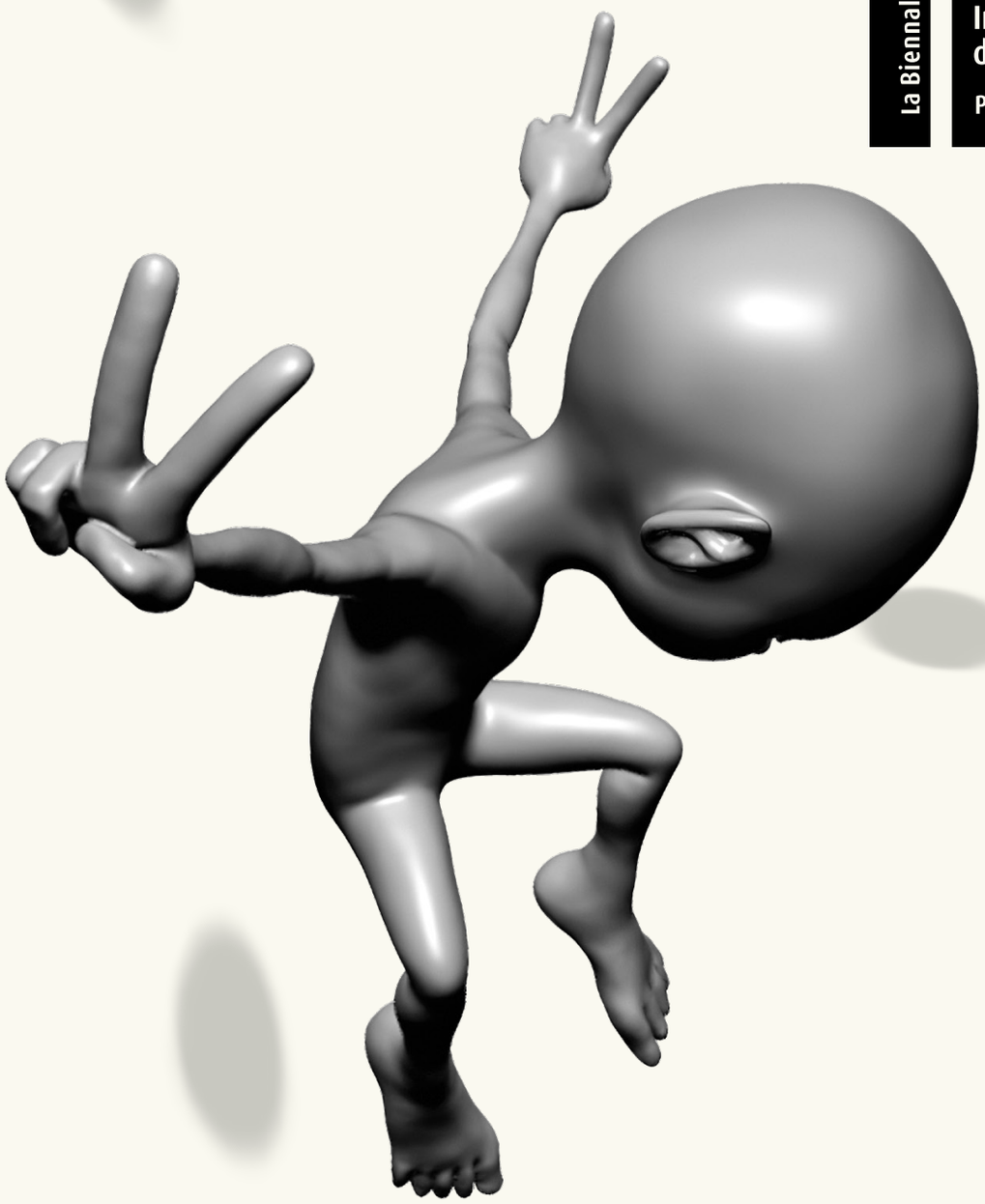
La Biennale di Venezia

60.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Partecipazioni Naziona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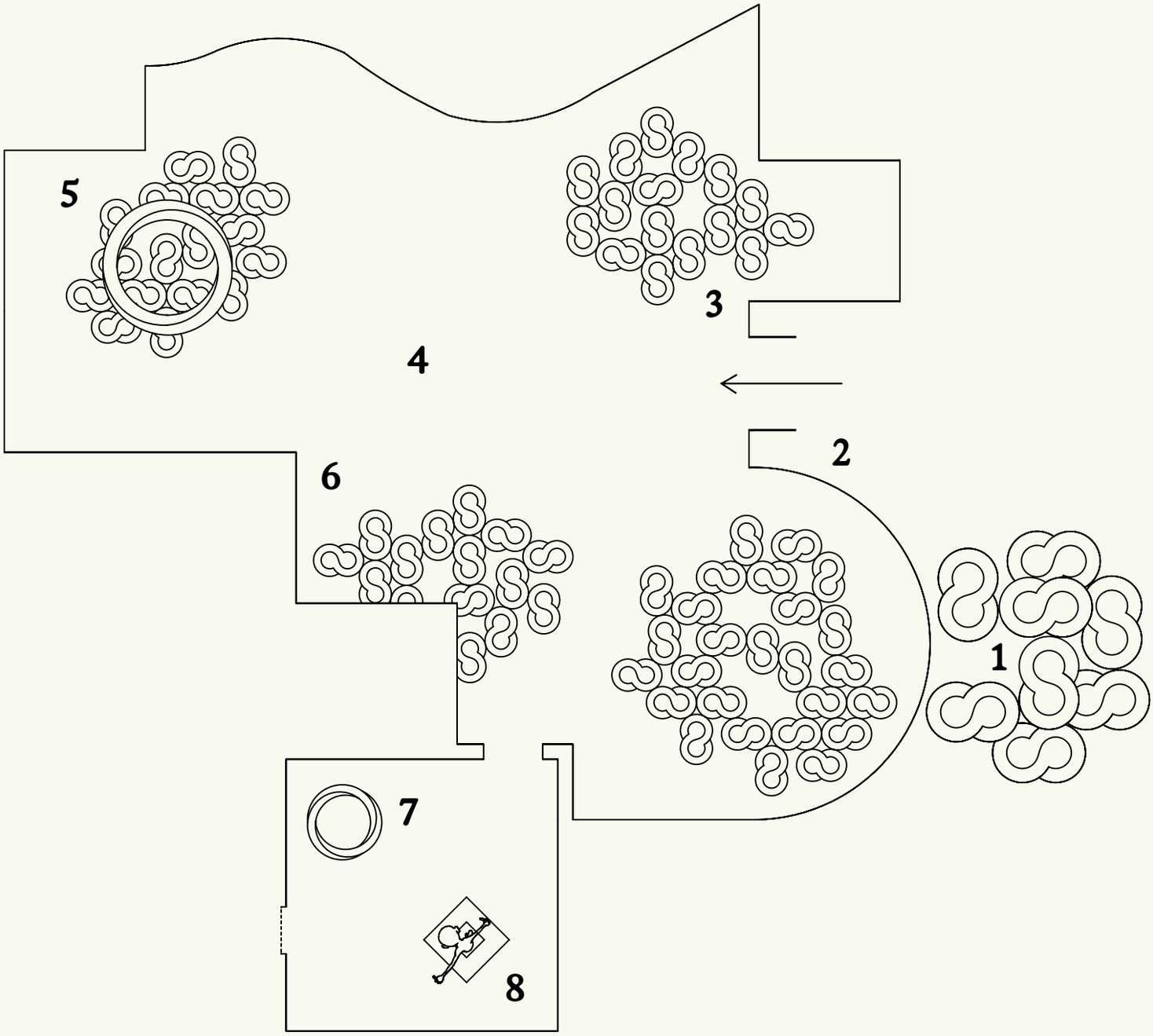


KOO JEONG A
ODORAMA
CITIES

Korean Pavilion, the 60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 La Biennale di Venezia
April 20 – November 24, 2024

Curated by Seolhui Lee & Jacob Fabricius

ARTS COUNCIL KOREA



1 KOO JEONG A, [OCV DIFFERENTIAL PEFS], 2024. Douglas fir wood outdoor benche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the Artist. © KOO JEONG A

2 KOO JEONG A, [OCV PS] PHASE SPACE, 2024. Metallic sheet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the Artist.

© KOO JEONG A

3 KOO JEONG A, [OCV COLLECTIVE SFEP], 2024. Douglas fir wood floor,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the Artist. © KOO JEONG A

4 KOO JEONG A, [OCV RC 1–16] REMOTELY CONNECTED, 2024. 16 scent perfume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the Artist. © KOO JEONG A

5 KOO JEONG A, [OCV SOS] SYMMETRY OF SPACE, 2024. Douglas fir wood, 40 × 257 × 257 cm. Courtesy the Artist. © KOO JEONG A

6 KOO JEONG A, [OCV AH] ALL HANDS, 1993–2024. Wall Painting RAL 6027,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the Artist. © KOO JEONG A

7 KOO JEONG A, [OCV SOT] SYMMETRY OF TIME, 2024. Douglas fir wood, 21 × 147 × 147 cm. Courtesy the Artist. © KOO JEONG A

8 KOO JEONG A, [KANGSE SpSt], 2024. Bronze, plywood metal, pigment paint, scent diffuser, perfume (ODORAMA CITIES), sensor, 317 × 74 × 162 cm.

Courtesy the Artist. © KOO JEONG A

* OCV: ODORAMA CITIES VENICE

향기 색인

한국관의 향기는 '향기 메모리 오픈 콜'에 언급된 기억과 키워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각각의 향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00 키워드 오도라마 시티

바다 향기, 산 냄새, 햇빛 향기, 먼지 냄새, 강 냄새, 겨울 냄새, 썩은 물비린내, 낙엽 냄새, 밥 냄새, 한약 냄새, 향 냄새, 옻칠한 나무 냄새, 목조 건물 냄새, 매연 냄새, 쇠 냄새, 온돌 바닥 냄새, 대중 목욕탕 냄새(소금, 진흙, 한약탕), 하수도 냄새

조향사	도미니크 로피옹 – 프랑스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샌달우드 / 쑥 / 인센스 / 튜베로즈
조향사의 영감	도미니크는 한국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힘, 특히 도시와 관련된 한국 현대사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어코드	샌달우드, 우디 노트
1970년대–1980년대 어코드	향신료 혼합물, 블론드 우드

1990년대-2000년대 어코드 대중 목욕탕 어코드,
한방 약초 어코드

2010년대-2020년대 어코드 인센스

01 키워드 도시 향기

도시 향기, 술 / 담배 냄새, 찌든 냄새 / 아파트 단지

조향사 메이브 맥 커틴 – 아일랜드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알코올 어코드 / 담배 연기 어코드 / 스티락스 레진

조향사의 영감 공기 중에 떠도는 알코올과 매케한 담배 연기

02 키워드 밤 공기

검은 물내음, 도시의 밤 공기, 풀 냄새, 아스팔트, 화학 물질,
돌 냄새 / 응고, 몽글몽글한 냄새, 매연, 자동차

조향사 페니 발 – 프랑스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아스팔트 어코드 / 핑크 페퍼 / 스티락스 레진

조향사의 영감 알싸한 스파이스 노트와 물내음 가득한 냄새로
그려지는 도시의 저녁

03 키워드 사람 향기

흙 내음, 사프란 향이 또렷한, 은은한 바닐라 향, 자두와 커피 /
은행 열매 냄새

조향사 장 크리스토프 에로 – 프랑스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사프란 오일 / 자두 어코드 / 커피 어코드

조향사의 영감 한국에 사는 사람을 귀한 사프란과 자두, 커피로 어우러진 얼시(Earthy)한 향으로 담아낸 후각적 초상

04 키워드 서울 향기

서울 향기, 골목, 음식 냄새, 매연, 군중 내음, 기름과 쇠, 땀내음, 거침, 강렬한 에너지 / 쓰레기 냄새 / 응고, 몽글몽글한 냄새, 매연, 자동차

조향사 김정아 – 한국 출생 싱가포르 활동

주요 노트 라다넘 레진 / 쾨쾨한 냄새 어코드 / 군중 냄음 어코드

조향사의 영감 한국인 조향사 김정아는 사람, 도시, 레진의 냄새 등 단순하지 않은 향의 조합을 통해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에 찬사를 보냅니다.

05 키워드 짠내

바다, 짠내, 해무 향기, 새벽의 공기, 풋풋함, 서해 / 젖고 케케묵은 오래된 도시의 향 / 습도 높은 바다 냄새 / 소나무 향 / 강변, 장마

조향사 폴 겔랑 – 프랑스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솔티 어코드 / 습기 어코드 / 바다 어코드

조향사의 영감 고향인 브르타뉴의 바다 향을 담아 내는 것을

즐기는 조향사는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동해의 상쾌하면서도 짭짤한 바다 내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06 키워드 함박꽃 향기

봄 냄새, 길가에 핀 아카시아와 라일락, 화단에 핀 진달래와 철쭉, 재개발, 사라진 장소

아카시아, 라일락 / 목련, 철쭉, 따뜻한 바람, 무성한 잎

조향사 앤 플리포 – 프랑스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목련 잎과 꽃 / 진달래와 아카시아 어코드

조향사의 영감 진정한 자연 애호가로서 한국에서 갓 깨어나는 봄을 축하하며 광채 어린 꽃을 한가득 선사합니다.

07 키워드 햇빛 냄새

햇빛의 향기, 오래된 한옥, 농지, 호박잎, 쌀 냄새, 시골 길의 바람 냄새, 밥 짓는 냄새, 철쭉, 살구꽃 냄새

조향사 델핀 르보 – 프랑스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호박잎 어코드 / 당근 오일 / 햇빛 어코드

조향사의 영감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농지의 호박잎이 바람으로 일렁이는, 점심시간이 갓 지난 햇살 냄새

08 키워드 안개

짙은 안개, 초원, 풀 냄새 / 갯벌 / 흙탕물 냄새 / 이끼 냄새 / 삼겹살 냄새

조향사 탕기 게스네 – 프랑스 출생 상하이 활동

주요 노트 패출리 / 안개 어코드 / 쑥

조향사의 영감 물비린내와 함께 이끼 가득한 풀 냄새가 자아내는 안개 자욱한 분위기

09 키워드 나무 냄새

소나무에서 피어오르는 잘게 부숴진 끈적한 송진 냄새 / 녹차

조향사 줄리엣 카라궤조글루 – 프랑스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사이프러스 앱솔루트 / 렌티스크 앱솔루트 / 유향 레진

조향사의 영감 조향사는 한국의 나무향을 재현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천연 원료를 선택했습니다. 사이프러스의 우디하고 시원한 향과 유향나무의 진득한 레진 뉘앙스가 어우러져 한국의 푸른 숲과 나무를 떠올리게 합니다.

10 키워드 장독대

장독대 냄새, 진흙 냄새 / 한국 음식, 특히 간장, 된장, 고추장

조향사 카미유 피레 – 프랑스 출생 싱가포르 활동

주요 노트 젖은 진흙 어코드 / 김치 어코드 / 한식

조향사의 영감 조향사는 진흙 내음과 발효된 김치의 향을 섞어 장독대의 전형적인 냄새와 유사한 후각적 묘사를 구현했습니다.

11 키워드 밥 냄새

참기름, 갓 지은 밥, 간장

조향사 카롤린 뒤뮈르 – 프랑스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갓 지은 밥 어코드 / 참깨 앱솔루트 / 간장 어코드

조향사의 영감 갓 지은 밥에 참기름과 간장을 섞은 냄새를 사실적으로 담아낸 창작물

12 키워드 장작 냄새

시골 할머니댁, 새벽 공기, 아궁이 장작 냄새 /

할머니가 직접 만든 식혜

조향사 니콜라스 볼리외 – 프랑스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나무장작 어코드 / 식혜 어코드 / 베티버

조향사의 영감 할머니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감싸오는 익숙한 장작 냄새와 수제 식혜 냄새

13 키워드 조부모님 댁

조부모님, 꿉꿉한 나무 향, 오래된 나무 냄새, 오래된 천 /

녹슨 철창 냄새, 마당의 흙 냄새, 비오는 날

조향사 넬리 아셈 루이즈 – 프랑스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힐링우드 오일 / 비에 젖은 디딤돌 어코드 / 오래된 천 어코드

조향사의 영감 비에 젖은 디딤돌 어코드와 함께 페어링 된 고급스러운 힐링우드 특유의 깊이감과 우디함이 조부모님 댁의 서정적인 냄새를 이끌어 냅니다.

14 키워드 수산시장

수산시장, 항구, 비릿한 짠내 / 바닷가 / 염전, 건어물, 구수한 냄새, 짠맛, 해조류 냄새 / 버려진 어망 / 굴 껍질 냄새 / 고무(또는 플라스틱) + 기름 냄새

조향사 오바 신이치로 – 일본 출생 싱가포르 활동

주요 노트 해조류 앱솔루트 / 생선 냄새 어코드 / 소금 어코드

조향사의 영감 해조류의 천연 앱솔루트로 짠내와 생선 냄새가 곧장 와 닿는 수산시장 냄새

15 키워드 공중목욕탕

등목, 비누 향기, 화장실 냄새, 겨울, 연탄불 냄새, 목욕탕, 스킨 냄새, 산업화, 뒷골목 냄새 / 꽃향, 정향, 흙향, 요거트와 살구의 과일향, 시원하고 향긋한 깻잎의 복합적인 아로마

조향사 도미틸 미샬롱 베르티에 – 프랑스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비누 향 어코드 / 쑥 / 사이프러스 앱솔루트

조향사의 영감 쑥과 사이프러스 앱솔루트의 아로마틱하고 시원한 향이 비누 향과 어우러져 한국의 전통적인 대중 목욕탕에서의 편안한 휴식의 형상을 그려냅니다.

16 키워드 오래된 전자제품

컨테이너, 흙먼지 냄새, 오래된 소파 덮개 냄새, 낡은 전자제품 향기, 금속 냄새, 젖은 점토 냄새, 감귤 향기 / 제철소 먼지 냄새, 화학 섬유공장 냄새

조향사 도미니크 로피옹 – 프랑스 출생 파리 활동

주요 노트 블랙 페퍼 / 철강 어코드 / 유향 레진

조향사의 영감 조향사는 시원함을 가진 향신료의 강렬함과 메탈 어코드, 약간의 먼지를 창의적으로 혼합해 추억속에 존재하는 오래된 가전제품의 냄새를 구현해 냈습니다.

향은 논픽션이 개발하였습니다.

구정아는 모든 곳에서 살고 일하는(lives and works everywhere) 작가이다. 그간 그는 건축, 언어, 드로잉, 회화, 조각, 애니메이션, 영상, 사운드, 향 등 여러 매체를 사용해 세상의 다양한 경계와 구분을 흐려왔다. 특히 향, 빛, 온도, 사운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시각 예술의 재료로 끌어오고 소소하고 내밀한 경험과 대규모 몰입형 작품을 융합해 일상의 시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점이 그의 주요한 특징이다. 구정아는 사물과 풍경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재배열'해 인간과 자연, 언어와 과학, 감각과 논리를 시적으로 승화한다.

베니스비엔날레 제60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전시는 구정아가 지난 30여 년간 다루어 온 주요 주제와 특유의 조각-설치의 측면을 아우른다. 작가의 광범위한 접근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테마는 '향'이다. 향은 활동 초창기인 1996년 파리 스튜디오의 작은 옷장에 좀약을 배치한 냄새 설치작품 ‹스웨터의 옷장› 이래, 구정아 작업에 거듭 사용돼 온 핵심 소재이다. 따라서 이번 한국관 전시를 위해 새로이 제작된 «오도라마 시티»는 냄새에 대한 작가의 오랜 실천과 관심이 녹아있는 '향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 구정아는 공간적 조우의

다양한 뉘앙스를 살피고, 냄새와 향기가 기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집중하며 우리가 공간을 감지하고 회상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향의 본질을 탐구하고 분자를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비물질주의, 무중력, 무한, 공중 부양이라는 작업 주제로 확장된다. 이는 올해 한국관 곳곳에 반영된 테마이자 키워드이다. 전시장 바닥에 새긴 무한대 기호이자 야외 설치작품으로서, 뫼비우스의 띠 형태로 부유하는 두 개의 나무 조각으로서, 또한 향을 퍼뜨리는 디퓨저이자 공중에 띄운 동상 ‹KANGSE SpSt›(2024)로서 한국관을 관통하며 변주되고, 마침내 이 공간을 ‘향기 메모리’의 집합체로 묶는 향이 상징화되어 유랑한다.

2023년 6월 25일 – 9월 30일 동안 진행한 오픈 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은 한반도의 향기 초상을 그리기 위해 ‘향기 메모리’를 «오도라마 시티»와 공유했다. 한국관 전시 팀은 SNS와 광고, 언론 보도와 개인적인 면담, 서한 등을 통해 남한과 북한 사람 및 비한국인 – 곧 한반도와 연이 있는 모두 – 에게 ‘한국(코리아)의 도시, 고향에 얽힌

향의 기억'에 대해 물었다. 이 오픈 콜을 통해 600편이 넘는 글이 모였다. 어떤 기억은 매우 사적이고 서술적인 반면, 단어 하나로 요약하거나 간결한 문구로 정리한 경우도 있었다. 선별된 주제어와 향기 기억은 여러 다른 조향사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어 조향사들이 사연과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국관에 16개의 상이한 냄새 경험을 조성해 줄 향들과 하나의 상업 향수를 만들었다. 모든 '향기 메모리'는 온라인(korean-pavilion.or.kr)으로 만나볼 수 있다.

구정아는 다음 범주로 분류된 사연들을 선정해 한국관의 냄새 경험을 조성했다. 도시 향기, 밤 공기, 사람 향기, 서울 향기, 짠내, 함박꽃 향기, 햇빛 냄새, 안개, 나무 냄새, 장독대, 밥 냄새, 장작 냄새, 조부모님 댁, 수산시장, 공중목욕탕, 오래된 전자제품, 그리고 오도라마 시티.

향기는 경계가 없다. «오도라마 시티»를 환영하며,

– 예술감독 이설희 & 야콥 파브리시우스

작가

여러 장소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구정아는 부서지거나 사라지기 쉬운 일상의 장면과 사물의 특성을 포착하여 평범함의 시적인 측면을 일깨우는 작업으로 국제 무대에서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동시에 섬세하고도 명징한 그의 작업은 향, 드로잉, 회화, 조각, 설치, 무빙 이미지, 건축 프로젝트, 시, 소설 등 다매체를 아우르며 현실과 비현실,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 너머를 지향한다. 대부분 작업은 우리 세계의 상상과 실제의 한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장소 특정적인 환경에서 구상되며, 장소와 사람들 사이 존재하는 에너지의 연결과 그들의 만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한다.

구정아는 쿤스트할레 뒤셀도르프(2012), 디아아트파운데이션 및 디아비컨미술관(2010), 파리 퐁피두센터(2004)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했으며, 이외 베니스비엔날레(2014, 2009, 2003, 2001, 1995), 리버풀비엔날레(2010), 부산 및 광주비엔날레(2020; 2014, 2002, 1997)와 솔로몬 R. 구겐하임미술관(2010, 2004, 2002), 루이비통파운데이션(2015), 국립현대미술관(2015) 등의 유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02년 휴고보스상 최종 후보, 2005년 에르메스미술상 수상, 2016년 주영한국문화원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사진 제공: PKM 갤러리, 사진: 김제원

예술감독

이설희(1987년생, 오르후스 거주 및 활동)는 덴마크 쿤스트할 오르후스 수석큐레이터(2023–현재)이다. 2020부산비엔날레

전시팀장,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2018–2019)로 재직했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올해의 작가상 2012»에 참여했다. 이 외에 한국예술종합학교(2019–2022)와 계원예술대학교(2022–2023)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연구 분야에서는 『한국 동시대 미술: 1990년 이후』(2017), 『키워드로 읽는 한국현대미술』(2019) 등에 원고를 실었으며, 2020년부터 한국 현대 미술 잡지 『아트인컬처』 등의 정기 간행물에 꾸준히 기고하고 있다.

야콥 파브리시우스(1970년생, 코펜하겐 거주 및 활동)는 덴마크 아트허브코펜하겐 관장(2021–현재)이다. 이전에는 쿤스트할 오르후스에서 예술감독(2016–2020)으로 재직하며 덴마크와 한국 간의 다양한 교류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그 관심사를 이어 2020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으로서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를 기획했다. 이 외에 덴마크 코펜하겐 쿤스트할샤를로보르 관장(2013–2014), 스웨덴 말뫼쿤스트할 예술감독(2008–2012), 스페인 산타모니카아트센터 부큐레이터(2006–2008), 프랑스 국립현대출판예술센터 협력큐레이터(2015–2016), 벨기에 컨투어 2013, 제6회 무빙이미지비엔날레 예술감독(2012–2013) 등을 지냈다.

사진 제공: 이설희 & 야콥 파브리시우스, 사진: 채대한

커미셔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후원

HYUNDAI

작가

구정아

파트너

NONFICTION

LUMA FOUNDATION

예술감독

이설희

야콥 파브리시우스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이나정

장유진

건축가

얀스 론홀트 슈미트

한국관 매니저

김은정

에디토리얼 매니저

김해리(국문)

사라 퀴글리(영문)

그래픽 디자이너

콘탁트(이원섭·박원영)

번역가

이예원

한제인

미샤 훅스트라

정새벽

헬렌 샤이너

에밀리 정민 윤

오픈 콜 번역가

김아영

김재현

Dinesen

콜라보레이터

LUSH

스폰서

ILJIN CULTURE FOUNDATION

Bloomberg Philanthropies

NICOLETTA FIORUCCI FOUNDATION

fonds de dotation agnès b.

BAZAAR ART

AHC Art Hub Copenhagen

서포터

Albarrán Bourdais

Pilar Corrias

pink summer contemporary art

PKM GALLERY

출판

DISTANZ Verlag

웹 개발자

디어스텝(최승혁)

영상 기록

유준범

니콜라이 닐슨 필립센

커뮤니케이션 어드바이저

김유원

홍보

SUTTON Communications

감사한 분

비요른 알퍼스(스튜디오 매니저)

카를로 클라바리노

CIRCA

말뫼 쿤스트홀

M+B 스튜디오

라이스하우스

빅터-아트

등